

설 이전 코로나 백신 접종...광주·전남 '접종센터' 설치 속도

광주, 이달내 자치구 5곳 확정 설치 전남, 22개 시군에 27곳 운영 계획 실내시설 대상 선정...지하시설 제외

광주와 전남도가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빠르게 늘면서 이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자치구 5곳에 백신접종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대규모 인원 수용이 가능한 대학과 실내 체육관 등 실내시설 등을 대상으로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 접종센터는 교통 편리성,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의료기관 접근성, 충분한 주차공간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최근 행정안전부 등과 공동으로 광산구 접종센터 설치 장소를 점검했으며, 이번 주까지 순차적으로 동구와 서구, 남구, 북구 예정 시설 방문도 마무리

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오는 11월까지 150만명 중 18세 이하 25만명을 제외한 125만명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다만 국내에 들어오는 백신 중 일부는 영하 70도에서 관리해야 하고 해동 이후 6시간 이내 접종과 함께 자연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방역지침에 따라 지하시설은 배제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접종센터 장소 선정과 동시에 부대시설 설치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접종센터는 백신 보관 장소, 접종자의 상태를 관찰 할 수 있는 '30분대 기동관', 거리두기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장비 등이 필수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시는 또 광주시 의사회와 간호사회 등의 협조를 받아 접종 필수 인력인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백신접종에 필요한 필수 인력은 센터 한 곳당 의사 4명, 간호사 8명, 행정 인력 10명 등 최소 22명이 필요하다.

전남도는 22개 시·군 중 목포·여수·나주·순천·광양 등 5개 시 지역은 2곳씩, 나머지 자치단체는 1곳

씩 모두 27곳의 백신접종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접종기관 지정·운영과 접종인력 확보, 접종 교육·훈련, 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 등을 위해 의료 전문가를 포함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추진단'을 전남도와 시·군이 각각 운영한다.

전남도는 이번에 배정된 백신에 대해선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를 비롯한 집단시설 노인·종사자, 성인 만성 질환자, 소아 및 청소년 교육·보육시설 종사자 등을 우선 접종 권장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백신접종센터 조건을 충족하는 최적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빠르면 다음달 설 명절 이전에 일부 백신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달 안에 접종센터 장소를 확정된 뒤 부대시설 등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시내버스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24일 오전 광주 동구 무등산 버스회차장에서 방역요원 이 버스에 소독약을 뿌리고 있다. 방역관계자는 회차지에서 들어오는 버스들에 대해 하루 평균 5~6회 이상의 방역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다음달 백신 5만명분 도착...의료종사자·요양시설 고령자 우선

코백스 초도물량 하이자 유력 추진단, 28일 접종 계획 공개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누가, 언제부터 백신을 맞을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을 비롯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예방접종 시행 계획을 확정해 오는 28일 공식 발표한다. 추진단은 당일 오후 방대본 정례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도입 추진 현황을 설명하면서 접종 대상 및 시기, 방법 등도 구체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백신 공동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 및 아스트라제네

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 등 개별 제약사와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총 5600만명 분을 확보했다. 또 노바백스와는 2000만명분을 추가로 들어오기 위한 계약을 거의 완료한 상태다.

이 가운데 코백스의 초도 물량 5만명분이 내달 초 가장 먼저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코백스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백신은 화이자 제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외에 제약사별 백신 도입 시점을 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2~3월부터, 얀센·모더나는 2분기, 노바백스는 5월, 화이자는 3분기부터 각각 들어올 예정이다.

이처럼 백신이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만큼 이번 예방접종 계획에는 백신을 먼저 맞게 될 우선 접종 대상자와 규모, 대상별 접종 시기 등에 대한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우선 접종 대상자로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요양병

원·시설 거주 고령자 등이 거론된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미국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는 우선 접종 대상으로 의료진과 요양시설 거주자를 권고하고 있고, 영국의 코로나19 백신 지침(Greenbook Ch.14a)에서는 요양원에 거주하는 노인 및 요양원 근로자를 1순위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더해 ▲노인 ▲성인 만성질환자 ▲소아·청소년 교육·보육시설 종사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50~64세 성인 ▲경찰·소방 공무원·군인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소 수감자 및 직원 등도 우선 접종 대상으로 검토해 왔다.

정부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의 순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내달 초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 코백스 초도 물량 5만명분을 누가 먼저 맞을지도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주중에 결정"

정부, 설 연휴 고려 코로나 방역조치 본격 논의

정부가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단계를 조정할지를 조만간 결정한다.

손연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향후 거리두기 조정 방안과 관련해 "다음 주 중에 의사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고자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전국적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방역 대책을 이달 31일까지 연장해 적용하고 있다.

손 반장은 "현재 적용하고 있는 거리두기 단계

들은 다음 주말 즉, 일요일까지 예정돼 있다. 그 이후 설 연휴까지 고려한 (방역) 조치의 조정 내용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들, 특히 관계부처들이 관련 협회와 단체,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의견을 함께 들으면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논의가 시작된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논의들과 함께 전문가 등 생활방역위원회 등을 함께 검토하면서 다음 주 중에 의사결정을 할 예정"이라면서 "다음 주말이 되기 전에 결정할 예정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3차 대유행' 양상으로 변해나갔던 국내 코로나19 확산세는 최근 둔화하고 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감소 국면으로 접어들어 상황이다.

최근 1주일(1.18~24)만 놓고 보면 하루 평균 392.6명꼴로 신규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및 지역 내 유행 상황을 가능할 핵심 지표인 지역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365.3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한 이후 전남 처음으로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전국 400명~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 시)을 벗어나 2단계 범위(전국 300명 초과)로 내려왔다.

/연합뉴스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무안 삼향 산란계 농장 AI 확진...전남 14번째

전국 71곳...달걀수급 차질

무안군 삼향읍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이 나왔다. 율겨울 들어 도내 가금농장에서 나온 14번째 확진 판정이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23일 무안 산란계 농장에 대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 확진 판정을 내렸다. 같은 날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9만9000수 사육)도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전남도가 지난 22일 오전 폐사 개체 수가 기존 45수에서 450수로 급증했다는 농장주 신고를 받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이에 전남도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최종 검사 결과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내려진 것이다.

전남 방역당국은 방역팀을 보내 농장 종사자, 가족의 이동제한 및 출입자 통제에 들어갔다. 발

생 농장에서 사육 중인 9만6000수에 대해선 살처분 및 매몰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방역당국은 또한 발생농장 반경 10km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30일간 가금농가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무안에 있는 모든 가금농장에 대해서 7일간 이동 제한을 명령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농장주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생식회 도포, 농장 마당 청소·소독,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부 소독을 매일 철저히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무안군 삼향읍 산란계 농장 확진으로 율겨울 들어 전남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내려진 가금농장은 14곳으로 늘었다. 육용오리 농장 10곳, 종오리 농장 2곳, 산란계 농장 2곳이다. 전국에서는 율겨울 들어 71개 가금농장이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수도권 및 충청권 산란계 농장에서 확진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달걀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달걀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010-9576-8289, 직통전화 062)464-9706

농성동 남양휴튼

농성동 시세차익 마지막아파트 (전세대 구.33평, 총 419세대)

청약통장 필요없음
전매제한 없음

지하철 더블역세권 숲 세권 원스톱학군

- 안방, 거실시스템에어컨 무상
- 중문 무상
- 발코니 확장비 무상

※ 코로나19로 홍보관은 방문예약제로 운영되오니 꼭 미리 연락주세요!

1800-1548

공고문

여수시 평여동 560-3번지

위 땅은 개인 사유지므로 무단출입 및 그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사용을 해야 하니 무단 식재되어있는 나무는 2021년 3월 31일까지 모두 옮기셔야 원상 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31일까지 원상 복구되지 않을 시 나무는 임의로 차분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은 물론 토지 인차로 부과 등 법에 의하여 처리하겠으며, 그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 피해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

2020년 1월 25일
TEL. 010-4904-2334

분할합병공고

2021년 1월 22일 각각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 그린엔지니어링(이하'갑')의 전기공사 업무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주식회사 서문산업(이하'을')과 분할합병(갑)의 전기공사 업무부분의 권리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승계한 후 양사는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게시일로부터 1개월내로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제위게시도 동 기간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5일
갑 주식회사 그린엔지니어링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502번길 20-11(역동동)
대표이사 노영심
을 주식회사 서문산업
대전광역시 유성구 갈매로71-1,2층(갈매동)
대표이사 신동필

광주日報 kwangju.co.kr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227-9600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220-0551

분할합병 및 양도공고

대양종합 송라빌(주)(갑)과 신한랜드 주식회사(을)은 2021년 1월 22일 각각의 임시주주 총회에서 '갑'의 전기공사 및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분할하여 '을'에게 할양하기로 하고 '갑'은 존속하되 분할되는 '갑'의 권리와 의무는 '을'에게 포괄 승계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전기공사사업 규정 및 관세청지침과 관련하여 의하여 양도에 관한 사무를 공고하오니 주주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이해관계인은 이 공고 게재 일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의신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5일
1. 분할하여 양도하고자 하는 전기공사사업 및 에너지 절약 전문업
- 전기공사사업: 등록번호(에)전남-016330
- 에너지 절약 전문업: 등록번호(에)2016-100830
2. 분할합병 및 양도 예정일: 2021년 2월 21일
3. 의결채증서: 분할합병(양도) 또는 분할합병(병합)인수인
2021년 1월 25일
분할합병(양도인) 갑 대양종합송라빌 주식회사
(법정번호: 20011-0436026) 대표이사 한신비
분할합병(병합인수인) 을 신한랜드 주식회사
(법정번호: 20011-0455879) 대표이사 김영숙
전남 담양군 창평면 창평리 129-752 (창평리)

69년을 밝힌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들과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역내선

북 구

- 통 226-1920
- 문 266-1960
- 복 525-3761
- 신 222-9171
- 알 571-7658
- 오 266-7801
- 농 433-1503
- 무 433-1503

동 구

- 광 675-5530
- 동 222-9054
- 동 225-8001
- 중 222-9054
- 중 222-8171

남 구

- 남 675-5530
- 북 651-1833
- 동 675-5530
- 신 675-6805
- 진 671-7276

서 구

- 광 382-5788
- 신 372-2353
- 서 369-1625
- 문 376-7153
- 지 376-6511
- 통 603-0311
- 화 369-1625

광산구

- 온 952-1687
- 월 959-1920
- 정 973-2900
- 하 955-0451
- 광 944-0444